正朝公派 派祖 秋享

◇정조공파 파조추향을 봉행하고 있다.

안동권씨 정조공파 종회(회장 권인탑)는 2013년(癸巳)파조추향을 10월31일(음 9월 27일)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현지에서 참제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주손 권순택을 중심으로 계좌하여 분정이 실시되었으며 초헌관에는 권순택, 아헌관 권영일, 종헌관 권재석, 축관 권혁인, 집례 권기용이 선정, 이날 향례는 강신, 참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례, 분축 순으로 정중히 봉행한 후 음복례가 개최 되는 동안 종회 회장 권인탑으로부터 능동춘추에 소개된 고려 초 중기 권정평 묘지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다 함께 뿌리 찾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지에서 참제원 전원이 따뜻한 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권혁조총무부장〉

창화공 (諱 準)추향제 봉행

昌 和 公 秋 享 祭

◇창회공 제례, 혁동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창화공 종회(회장 권병선)는 지난 10월27일(일)12시에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서곡리 민통선 내 창화공묘소에서 후손 1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히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서울에서 는광화문 세종회관에 집결하여 버스1대로 출발하여 임진각 북진교(리비교)검문소에 1차집결하고 경기평택에서 버스1대, 전북순창에서 1대, 경기근교(화성, 봉담, 용인, 양주, 인천)등지에서 승용차로 10시 30분에 합류하여 묘소로 이동하였다. 11시경 제례준비를 모두 마치고 제례에 앞서 병선 종회장은 인사로 오늘 선조(先祖)님 제례봉행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저멀리 순창, 평택지역후손 등, 참제해주신 모든 족친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금년은 지난해 보다 더 많이 참제하셔 날씨도 더욱 청명한 하늘이 반기는 같다며 인사한 후, 아울러 문사에 숙원이었든 창화공 '종중파보'(宗中派譜)를 발간하여 내달부터 인쇄 들어가게 되었다고 안내하면서 거듭 종회원의 많은 관심을 당부 하였다.

이날 제례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권두연(㙫淵)△아헌관 권영식(寧植)△종헌관 권병택(炳澤)

△축관 권혁동(赫東)△집례 권영부(寧夫)

〈권범준 기자〉

평리공·문탄공·종정공 추향봉행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화봉산에 있는 복야공파 12世 評理公(휘 頊) 14世 文坦公(휘 仲達) 15世 宗正公(휘 嗣宗)의 묘소에서 100여명의 후손이 참제한 가운데 권동술집례로 각 추향제를 엄숙히 봉행했다. 제례 후 화봉제사 건립에 대해서 회의에 들어가 권영복(감정공계), 권오철(예빈공계), 권영욱(예천공계)씨로 추진위대표를 선임해 건립키로 했으며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영빈 ▲아헌관 :권영훈 ▲종헌관 : 권도연 ▲독축 : 권영운 ▲찬자 : 권동술

〈권혁세 기자〉

복야공파 15世 예천군 휘 季容 16世 목사공 휘 綏 추향 봉행

◇복야공파 15世(휘 季容)예천군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음 10월 7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화봉산 복야공파 15世(휘 季容) 예천군 16世 (휘 綏)목사공 묘소에서 오전 11시~1시까지 추향제를 후손 36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예천군 : ▲초헌관 : 권도현▲아헌관 : 권순필 ▲종헌관 : 권영택 ▲축 : 권영식 ▣목사공 : ▲초헌관 : 권순무▲아헌관 : 권혁철▲종헌관 :권순필▲축: 권영식

이어 10~11代祖 15代祖 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제향을 봉행했다.

〈권혁세 기자〉

文忠公·文景公·安肅公 秋享祭 문충공·문경공·안숙공 추향제

◇문충공 향사에 초헌관 권영환 고문이 헌작하고 있다.

지난 11월1일(금) 11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문충공3代 묘역(墓域: 맨윗대 문충공 휘諱 근近. 16世, 공公의 둘째아들 문경공 휘諱 제踶, 손자孫子 익평공翼平公 휘諱 람擥)등 조선초 개국공신이며 문형(文衡)이신 양촌선생의 3代 가족묘소와 묘역으로부터 인근에 위치한 공의 막내아들인 안숙공(휘諱 준蹲)등 3부자(父子) 및 손자 포함 제례를 위해 전국각지 후손 150여명이 참제하여 엄숙히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에 앞서 오전10시부터 문충공 정종이 개최되었다. 회의진행은 권오성 상임부회장이 진행하게 되었다. 오성 부회장은 진행에 앞서 인사로 "오늘 권영위 종회장께서는 건강상 입원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으며, 오섭 총무는 금번 소이면 부면장으로 재직 중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미국 해외공무상 출장으로 참석 불가피하여 회칙상 본인이 대행하게 되었다." 인사하였다. 이어 내빈소개로 대종원 권혁승 상임부총재 겸 추밀공파종회장, 권경석 사무총장, 권재형 복야공댁 前 경천묘당장, 권학주 평후공종회장, 권정택 기로회장, 권영빈 추밀공사무국장, 권의철 정간공종회사무국장, 권혁진 제학공종회前회장 등이 소개되었다. 이어 오성 부회장의 경과보고 및 오석 감사의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 끝으로 오성 부회장은 문충공 양촌(陽村)할아버님의 평소 즐겨 찾던 한시를 권혁로(종부회장, 現충주충열서원원장)족친이 직접 쓰고 표고해온 내용을 소개하였다.

*해설: 봄바람이 스치니, 청명절이 가까웠네.
비갠 하늘 저녁볕은 해맑은데,
집 모퉁이 살구꽃은 두루피고 싶어하는데,
이슬 맺은 꽃가지 사람을 향하여 기울었네.
라고 낭독하여 참제족친으로 부터 화답을 받았다.

또한 본제례를 위해 매년 춘, 추향에 손수 빚은 제주(祭酒:오가피,국화,찹쌀 등 직접제조 연붉은색)를 진헌하는 한결같은 정성으로 일념해주신 할머니를 소개하면, 미담의 주인공은 제학공(매헌댁)의 (휘 諱 오상. 35世) 미망인 전주이씨 근순(根順)여사로 90이 넘은 노령에도 부군 생존시부터 현재까지 29여년을 매년 춘. 추향시 직조이신 매헌공 제향으로부터 방조이신 양촌선생 제향에 제주를 해마다 빠짐없이 올리는 지극정성의 숭조정신은 현세 무너지는 효사상에 좋은 귀감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음성 생극면 방축리 문경공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안숙공 추향제에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이날 제례분정

▣문충공 △초헌관 권영환(寧桓)△아헌관 권재형(載炯)△종헌관 권병홍(炳洪)△집례 권혁노(赫魯)△대축 권영준(榮俊)

▣문경공 △초헌관 권기준(奇峻)△아헌관 권혁승(赫昇)△종헌관 권혁세(赫世)△집례 권영준(榮俊)△대축 권오규(五奎)

▣안숙공 △초헌관 권영걸(寧傑)△아헌관 권혁진(赫辰)△종헌관 권태빈(泰彬)

△집례 권태안(泰安)△대축 권영준(寧俊)

倉守公,習齊公,石洲公 秋享祭 奉行

◇창수공 추향제에 권오상(權五常)씨가 독축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음력 10월 10일) 창수공 종중 (회장 權炳敦)은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감내에 있는 재사에서 추향제를 봉행했다.

족친들은 9시부터 선영의 묘소를 일일이 돌아보고 성묘를 끝낸 후 10시 30분부터 甘露齋에서 후손 6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倉守公 承旨公 習齊公 生員公 別坐公 松禾公 石洲公 睡隱公 8位분의 추향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집사분정은 아래와 같다.(세, 휘,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

◈ 倉守公 19世 憶 權炳敦 權寧傑 權五燮 權奐吉 權炳洪

◈ 承旨公 20世 祺 權炳敦 權景晳 權赫燦

◈ 習齊公 21世 擘 權炳洪 權赫俊 權炳起

◈ 生員公 21世 별 權五哲 權炳佑 權景一

◈ 別坐公 22世 韓 權五興 權寧哄 權炳雨

◈ 松禾公 22世 勒 權奐吉 權炳昶 權寧旭

◈ 石洲公 22世 韓 權景晳 權純龍 權純一

◈ 睡隱公 22世 韜 權五均 權赫빈 權寧世

(權景一기자)

南岡公 휘常 先後 3代 歲享 奉行

◇남강공(휘상)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 3일 11시경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미조현의 추밀공파 정헌공계 17세 휘 복 화산부원군 후손 남강공 제손 참제원 50여명은 향례에 앞서 종손 회정씨의 인솔로 남강공 묘역을 참배하고 내려와 추모제 정당에서 선후 삼대 가을 세향을 봉행하였다.

남강공 휘 常(21世)은 진(振)의 외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나 모친상을 당하니 시묘 3년 후 운봉현감 시에 청렴검약하며 치정에 힘쓰니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선조 5년 65세로 용강현감을 거쳐 광흥창수, 76세에 선공감정에 이르렀다. 이때 효(孝)와 순행(純行)이 알려져 통정대부에 오르고 80세가 되어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가 되면서 증조까지, 3대까지 추증(追贈)하는 은전을 받았다.

선조실록에 "권상(權常)은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워 7세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상을 당하여 3년동안 여묘를 하고도 조석으로 사당에 배례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임금이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조야가 효행을 천거할 때 권상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공은 심중대덕 경세언인(心中大德 經世彦人)의 8자의 남강가첩(南岡家帖)을 남겼는데 이후로 남강자손들은 항렬자로 삼아 내려오고 있다. 공은 또한 행의가 독실하였으며 학문이 깊고 베풀기를 좋아 하였으니 '속삼강행실록'에 실려 있다. 공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으로 추증되고 숙종36년 사림에서는 청주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건립하여 제향하게 되고 영조 36년 봉계서원(鳳溪書院)으로 이향되었는데 고종8년 철폐되니 1929년 백록동 구지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1966년 백록서원(白鹿書院)을 복원하였다. 또한 성호 이익(李瀷)의 논의에 의해 사당을 세워 4대가 영구히 기제(忌祭)를 지내도록 부조지전(不祧之典)이 내렸으니 공의 묘하에 모셔있다.

분방기

참관공參判公: 초헌관初獻官 회정會廷, 아헌관亞獻官 진택晉澤, 종헌관終獻官 흥안興顔, 축관祝官 재택在澤, 집례執禮 남옥南玉 남강공南岡公 : 초헌관初獻官 회정會廷, 아헌관亞獻官 정택貞澤, 종헌관終獻官 혜택惠澤, 축관祝官 희철熙哲, 집례執禮 남옥南玉 (기로회장 권정택)

晉州牧使 휘 良 秋享祭

◇경기도 양주시 하패리 목사공 내능재에서 추향제에 독축을 하고 있다.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정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소재한 목사공 묘하 내능재에서 최존 위 목사공 이하 26위의 계사년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목사공은 추밀공파 정헌공계 18세로 화산부원군 휘 복의 7남 중 차남이다.

진주목사를 행직하여 목사공으로 호칭한다. 세조1년 1455년12월27일자에 공이좌익원종공신3등에 녹훈되는 기사가 나오고 1465년2월27일자에는 원각사의 역사의 관여하는 낭관으로 나오며 세조 13년 대부직으로 함경도 안변부사가 되어 나가는 기사가 실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성종1년 당상관 통정대부로서 진주목사가 되어 나간다. 다시 2년뒤 성종3년1472년1월24일에 진주목사에서 관내백성이 왜인과 투접한 일로 문책되는 기사가 나온다.

이날의 세사는 이러한 牧使公, 그 아들 상장공上將公 사정공寺正公 현령縣齡 순위대로 봉행하고 점심식사 후 총회를 하였으며 회장에는 태균씨가 유임되고 감사 총무 임원들 모두 재임되었다.

집사 분방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五喆, 아헌관 泰奉, 종헌관 寧一, 대축 泰均

知申公 휘 愔 이하 4위 歲享

경기 연천 백학면 두현리 묘역에 40여 후손 참제

2013년 10월 27일 11시경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삼정동 본 지신공 휘 희(愔)(1547-1624)이하 3위에 계사년 세사가 봉행 되었다.

지신공은 22세로 추밀공파 정헌공·화산부원군계 남강공(南岡公) 휘(諱)상(常)의 삼남인데 남악공(南嶽公)으로도 호칭한다. 선조 1년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를 하고 1584년의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에 들고 임진왜란에 임금이 의주로 파천할 때 종묘서령(宗廟署令)으로 종묘의 역대 신주와 옥새(玉璽)를 받들고 형재소까지 이른 공으로 호성원종공신(扈聖元從功臣) 1등에 책봉되었다.

대사간·예문관·지제학과 황해·충청도 감사가 되기도 하고 인조반정후에는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을 배수하고 임란(壬亂)에 종묘를 배호(陪扈)한 공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가자되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었다. 인조가 주자동에 저택을 내리고 충신지려(忠臣之閭)라 어필로 정표(旌表)하였다.

공의 졸 후의 임금은 호성원종공신이라 하여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 우의정(右議政)을 추증하였다.

집사분정

- 지신공(知申公): 초헌관 효택(孝澤), 아헌관(亞獻官), 영욱(寧旭), 종헌관(終獻官), 희철(熙哲), 축관(祝官), 정택(貞澤)
- 참판공(參判公): 초헌(初獻)동안, 아헌(亞獻)태영, 종헌(終獻)이혁, 축관 희철
- 대사헌공(大司憲公): 초헌(初獻)은옥, 아헌(亞獻)오현, 종헌(終獻)희태, 축관(祝官)희철
- 현감공縣監公: 초헌(初獻)동택, 아헌(亞獻)영길, 종헌(終獻)회삼, 축관(祝官)정택

〈기로회장 권정택〉

정조공파대구파친회 사적지답사

◇정조공파 대구 파찬회가 "함벽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조공파대구파친회(會長權五德)는 지난 11월2일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적지답사 행사를 개최하였다.

신라말 최치원이 말년에 홍류동 계곡에 정자를 짓고 살다가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농산정과 팔만대장경의 해인사와 조식, 이황,송시열 등의 글이 누각 안에 걸려 있는 합벽루를 답사 둘러보았다.

회원간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감자탕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시종 한결같이 따뜻한 정으로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람되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다.

(총무 혁상)